

考古學 遺物을 통해 본 東西文化交流

Joachim Werner*

南韓의 신라왕조와 일본의 야마토 왕조의 귀족층 고분은 직접적으로 불교 수용에 앞선 시기의 역사와 문화발달의 가장 중요한 고고학적 자료이다.

유럽 고고학자들의 특별한 관심사는 중부와 북부유럽에서 기독교 수용과 유사하게 관련되는 고급종교의 수용과정에서의 장례관행의 변화이다.

커다란 흙더미에 덮여 풍부한 부장품들을 갖던 한국과 일본의 무덤들이 점차적으로 화장으로 대체되었는데, 이는 부장품을 갖던 서양의 무덤들이 아무런 무덤장식이 없는 교회 주변 묘지로 바뀌는 현상과 비교될 만하다.

한국과 일본의 고고학자들은 신라시대와 고분시대의 무덤장식을 주로 연대기적 관점으로부터, 또한 문화사와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취급하였다. 유럽의 고고학자들은 자신의 극동 동료들에게 고고학적으로 비교할 만한 5, 6세기의 한국과 일본에 있어 귀족층의 무덤장식에 어떤 흥미로움이 있는지, 그리고 불교시대 以前의 종교, 장례관행, 다른 세계에 대한 생각 등에 관해 무엇을 말해줄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백제의 무녕왕(501-523)과 그 왕비가 죽은지 26개월 후에 장사되었다는 것(1971년에 공주에서 발견된 무녕왕릉비에서)이 이 강의의 출발점이다. 왕은 밭바닥에 못이 박혀있는 청동 신발을 신고 있는데 이는 의

* 독일 바이에른 학술원 부회장

심할 바 없이 장례에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제조된 것이다. 따라서 (15개 정도의 예를 들어) 한국과 일본의 무덤에서 발견되는 청동신발과 황금으로 만들었던 신발이 논의되어야 한다.

원칙에 대한 해석의 한 보기로써 천마총이라 불리는 신라의 155호 고분이 분석될 수 있다. (나뭇잎 모양의 장식이 된 금관, 금으로 만든 신, 새깃털 장식의 금관, 여러가지 모양의 주술盒(locket)을 단 허리띠 등) 샤머니즘적인 의미에서 자작나무 껍질에 그려졌던 천마도를 포함한 몇몇의 특정 부장품들을 해석할 것이 제기된다.

더욱 확실한 증거는 5, 6세기 일본과 한국의 무덤에서 발견되며, 그 유사한 현상이 Kasakstan과 Rhine間的 훈족들의 귀족 무덤에서 관찰되었다.

강의의 주된 목적은 종교사적 관점으로부터 신라시대와 고분시대의 고고학적 자료를 분석하도록 극동의 학자들을 자극하려는 것이다.